



11차 전기본 내용과 발표시점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 주요내용〉

2.13(화) 국민일보 「11차 전기본 초안 발표, 총선 후로 미뤄지나」에서는 정부가 11차 전기본 초안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4월 총선 이후에나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12(월) 연합뉴스 「11차 전기본 실무안 3월 이후 공개... 새 원전 포함 여부·규모 주목」, SBS 「‘새 원전 건설 여부·규모’ 전력수급계획 3월 이후 공개」 등에서도 11차 전기본 초안이 3월 이후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11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발표될 예정인 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1차 전기본의 발표시점은 추후 사전에 공지하겠으니,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전력산업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우진	(044-203-3881)